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5. 3. 20.(목) 배포 2025. 3. 20.(목)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형형색색 두근두근 봄맞이! 더 풍성하고, 더 다양한 전시·문화 행사 마련

- 국립백두대간수목원, 튤립·무스카리 꽃축제 -
- 국립세종수목원, 세록세록 꽃축제 및 문화공연 -
- 국립한국자생식물원, 무궁화 묘목 나눔 등 -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봄을 알리는 다양한 꽃과 볼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한 축제를 선보인다.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사장 심상택)에 따르면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국립세종수목원, 국립한국자생식물원에서 봄철 다양한 전시·문화 행사를 마련했다.

먼저 오는 4월 8일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진입광장 및 보라정원 일원에서는 형형색색의 튤립과 무스카리가 방문객을 맞이한다.

특히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는 오는 4월 8일부터 5월 11일까지 9만개의 튤립과 무스카리가 만들어낸 봄 풍경과 함께 ‘구근구근, 마음전시회’가 관람객의 눈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또 4월 5일부터 13일까지는 영주새우난회와 공동으로 130여 점의 새우난초 전시회가 열린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숙박하면서 전시원의 이야기를 듣는 체류형 힐링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오는 4월19일부터 전시원 곳곳이 분홍색으로 물들 예정이다. ‘세록세록 봄바람 분홍 전시회’가 펼쳐지는 국립세종수목원에서는 형형색색의 튤립과 분홍색의 비올라가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지중해온실에서는 약 300품종의 제라늄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사계절전시온실 앞 축제마당에서는 플리마켓과 다양한 문화공연이 봄을 재촉한다.

제80회 식목일과 광복 80주년을 기념해서는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의 경우 등근잎 썩의비름 등 총 200본을, 국립한국자생식물원에서는 무궁화 묘목 총 320본을 관람객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심상택 이사장은 “이번 봄 꽃 축제는 수목원·정원 문화를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로 마련했다” 며 “이번 봄 꽃 축제를 통해 지역경제에도 활력이 더해지기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국립세종수목원, 국립한국자생식물원을 운영중에 있으며, 한국정원문화원(전남 담양)과 정원소재실용화센터(강원 춘천)를 개원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대외협력실	책임자	실 장	조양수 (044-270-5110)
		담당자	주 임	최재원 (044-270-5115)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1. 2024년 4월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무지개정원에 형형색색 튜립이 식재되어 있는 모습



2. 2024년 봄 국립세종수목원에서 개최한 봄꽃 축제 '세록세록' 축제마당에 튜립이 식재되어 있다.



3. 2024년 국립세종수목원을 방문한 관람객이 '향기톡톡' 해설을 들으며 온실을 관람하고 있다.